



조선민주주의

주체조선의탄생

1948.9.9.

금수강산

9

주체112(2023)
루계 제409호 월간

표지: 주체조선의 공민된 인민의 기쁨

람홍색 공화국기와 꽃다발 등을 손에 들고 열광의 환호를 울리며 김일성광장을 통과하는 시위행진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주체조선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2



20



26



34



38



46



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맞으며

2 || 인민의 나라

8 || 국호, 국기, 국장에 깃든 이야기

10 ||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국가창건에 구현하시어

11 || 복리를 담보해주는 사회주의적시책들

12 || 노래를 통해 본 조국의 력사

일 화

13 || 위민헌신의 나날에

대 담

14 || 나라살림살이의 주인,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15 || 《꿈만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우리 제도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6 || 단합의 리념아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18 || 단 검

19 || 민족의 진로를 밝혀주는 사상

20 || 맛좋은 첫갈품들이 생산된다

22 || 녀성들이 즐겨 찾는 피복제품들

24 || 민족악기의 특성을 살려

26 || 평양교원대학

32 || 자라는 꿈, 커가는 마음

34 || 다음번 목표는 4련승

36 || 학위학직증서들에 비낀 마음

38 || 로동생활환경을 개선하여

40 || 푸른 숲에 바쳐진 100여년

42 || 모녀우표수집가

조국의 품에 안겨

44 || 건축공학부문의 최우수발명가

고향소식

46 || 대평지구의 새 모습

편 지

50 ||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51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재중, 국제고통련동포조직들 경축행사 진행

52 || 락탈당한 《꿈에 본 동산》을 두고

력사이야기

53 || 공정한 소송판결

력사인물

54 || 허란설현과 허경란

55 || 조선의 단청-두공무늬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56 || 《변고양이》로 불리운 변상벽

조선의 명산

58 || 칠보산 (2)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공화국정부의 정강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9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기의 국호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아로새긴 때로부터 장장 75년세월 인민의 마음속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꽃피어나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은혜로운 품으로 소중한 자리잡은 공화국이다.
존엄높은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지혜와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공화국을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강화발전시켜 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세 차게 굽이치고있다.
둘이켜보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며 지지리 놀리우

고 짓밟혀온 조선민족이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인민은 국가주권이 없는 설음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참다운 조국,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갈망하던 민족의 세기적념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었다.

어리신 나이에 나라를 찾으실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장 20성상 항일의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헤쳐오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려보신것은 세계에 빛나는 인민의 나라, 인민의 행복속에 부강번영하는 새 조선의 모습이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여 인민정권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신 그이이시기에 해방후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마련하신 인민정권건설로선을 구현하시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부터 세우시였다. 그러시고는 토지를 발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시고 중요산업의 국유화와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시여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수 있도록 법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주시였다.

주체37(1948)년 9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자주독립국가로 거연히 솟아오르게 한 일대 사변으로 되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국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화국을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해주는 인민의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의 눈빛과 소박한 말소리에서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다 헤아리시여 수많은 인민적시책들을 내놓으시고 법적으로 고착시켜주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의 품에서 조국인민은 세금이란 말을 모르고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의 혜택을 받으며 복된 삶을 누릴수 있었다.

나라의 명당자리들에 아이들과 인민들을 위한 궁전과 야영소, 유원지 등이 일떠선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이민위천의 리념이 얼마나 숭고한것인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근로인민에게 정권의 주인이 된 크나큰 긍지와 기쁨을 안겨주었다.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월

참으로 공화국을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행복한 삶의 창조자, 향유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건국의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이 력력히 어려있는 공화국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인민의 나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이 땅을 제일로 사랑하신 그이 이시기에 것처럼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 선군정치로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을 영원히 수천만 인민이 안겨사는 따뜻한 품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 애국신조를 지니시였기에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짝 차 있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대대손손 누려갈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시였고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에는 두고온 조국과 인민들이 그리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감회깊이 불러보곤 하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기고가신 인민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지정리된 한드레벨



만수대거리의 일부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조국땅위에 수많은 인민사랑의 전설이 수놓아질수 있었다. 하기에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고립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피주신 새로운 대고조의 열풍속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토대가 마련되였다.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9월

압살책동과 극악한 제재속에서도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새 세기 산업혁명으로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조국을 세계에 당당히 내세우고 인민에게 세상만복을 하루빨리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의지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사회주의조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인민사랑의 역사를 끊임없이 수놓아가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피눈물의 언덕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혁명령도의 전 로정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수놓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제도를 평가하고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민들의 웃음이라고, 인민들이 얼마나 밝게 웃는가,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넘쳐나는가 하는데 따라 국력이 강한가 약한가 하는것이 결정된다고 하시며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공화국의 역사를 수놓아가시였다.

소년단야영소들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중앙동물원과 같은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 살림집들, 멋쟁이거리들...

그이께서 펼쳐주신 건설의 대번영기속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조국땅 방방곡곡에 일떠서고 인민들이 사회주의문명의 향유자, 그 주

인들로 되고있다.

최대비상방역전의 그 엄혹했던 나날에도 인민의 안전과 건강이 있고야 자신도 있다는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인민사수전의 최전방에 나서신 그이께서는 두차례나 가정에서 준비하신 상비약품을 황해남도의 어려운 가정들에 보내주시였다.

적대세력들의 전쟁위협을 정의의 보검으로 쳐물리치시고 전지구적재앙을 몰아오는 악성비루스도 인민사수의 방탄벽이 되어 막아주시는 그이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 조국과 인민의 안녕이 굳건히 지켜지고 모든 가정들에 평온과 웃음이 한시도 가셔져본적이 없었다.

정녕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내짚으신 걸음걸음마다에서 조국의 설계도가 펼쳐지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아갔다.

하기에 조국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목숨과도 같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가는 길에서 공민의 본분을 다해가고있는것이다.

참으로 공화국은 절세위인들을 모시였기에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지성



새집을 받은 자강도 희천시 지신남새농장의 농업근로자들 주체112(2023)년 6월 촬영



양어의 덕을 보는 평안북도 운산군 인민들



마식령스키장에서



문수물놀이장에서

국호, 국기, 국장에 깃든 이야기

새 조국건설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호와 국장, 국기도안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가 제시되었을 때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조선이라는 말아래 무슨 글자가 아홉자씩이나 달렸는가. 국호가 너무 길다.》, 《외국에서는 나라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다.》라고 떠벌이면서 이를 반대해나섰다.

그러던 주체37(1948)년 7월초 어느날 국호제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몇몇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인민들이 요구하는 국호를 제정하면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 나라 실정에 맞고 우리 인민이 좋아하면 좋은것이다, 원리적으로 보나 계급적으로 보나 우리 나라의 국호는 독창적인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는 가장 정당한것이라고 하시였다.

한달후였다.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공화국창건과 관련하여 국호문제와 국기, 국장제정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국호문제가 토의되었는데 우리 나라의 국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치로선에서 이미 명시하신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할데 대한 안이 제기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절대다수는 그 안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이께서는 일부 사람들이 국호에서 《인민》을 빼자고 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그릇된 주장이라고, 《민주주의》를 빼자는 주장 역시 위험한 견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국호를 제정함에 있

어서 우리 혁명의 근본목적과 당면임무를 다같이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리는 장차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며 당면하게는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명철하고 론리정연한 교시에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더는 저들의 주장을 고집하지 못하고 머리를 수그리고야말았다.

이어 국기와 국장의 도안문제가 심의되였다. 국기와 국장도안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제시하신 것이였다.

미술가들이 국장의 도안방향을 찾지 못하여 모대기고있을 때에는 친히 현장에 나오시여 도안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신 그이이시였다.

주체37(1948)년 1월 어느날이였다.

깊은 밤에 미술가들이 도안하고있는 현장을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아직 도안이라기보다 착상이 떠오르는데도 그런데 불과한 국장도안을 보시다가 벼이삭테두리에 시선을 멈추시고 그려놓은 벼알수를 손수 가늠해보신 다음 장차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먼 장래를 내다보시면서 벼알을 더 많이, 더 탐스럽게 그려넣어야 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벼이삭테두리안에 그린 용광로를 유심히 보시며 용광로도 공업발전의 전망을 표현하는것이기는 하지만 공업의 한 부분을 반영한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국장에는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과 함께 강력한 현대적인 공업과 선진적농업의 발전전망이 뚜렷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장뿐 아니라 국기도안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왼쪽)과 국기(오른쪽)

그해 2월초순 어느날 그이께서는 국장, 국기 도안가들을 찾으시고 국기의 도안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기에 흰것과 푸른것이 너무도 많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투사들이 흘린 피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혁명력량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렇다고 하여 국기의 바탕을 다 붉은색으로 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잘 맞지 않는다고, 수천년의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지고있는 단일한 민족이라는것을 상징하는 흰색은 지금의 도안보다 좀 가늘면서도 선명하게 하며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기백과 공화국의 자주권을 상징하는 푸른색 역시 지금보다 가늘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그리고 흰 동그라미는 지금처럼 중간에 놓지 말고 기발대 쪽 옆으로 놓으며 흰 동그라미안에는 미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오각별을 그려넣는것이 좋을것같다고 하시였다.

도안가들의 눈앞에는 금시 오각별 찬란한 람홍색공화국기가 눈앞에 펼쳐져보이고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영원무궁토록 번영하는 조국의 휘황찬란한 앞날이 현실로 안겨오는것만 같았다.

도안가들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 창작적 고민에서 깨어나 단숨에 붓을 들고 그려나갔다.

그리하여 주체37(1948)년 5월에 국기와 국장 초안을 신문에 발표하여 전체 인민의 토의에 붙이게 되였다.

미술가들이 국장도안에 그린 용광로를 다른 그림으로 바꾸지 못한채 심의에 제출했을 때였다.

국장도안을 찬찬히 살피시던 그이께서는 이전에도 말하였지만 국장에는 우리 나라의 발전전망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물론 용광로를 그린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 나라의 발전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는 볼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장차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된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되려면 기술발전의 방향을 보여주는 전기화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미술가들의 눈앞에는 새롭게 그려질 국장의 모습이 펼쳐지면서 그 국장에 담겨진 우리 조국의 휘황한 앞날이 현실로 안겨오는것만 같았다.

그후 미술가들은 수력발전소를 그려넣은 국장을 훌륭히 완성하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국호와 국기, 국장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였다.

본사기자 엄향심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국가창건에 구현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부름과 더불어 존엄떨치고 인민이 몸과 마음다 바쳐 받드는 사회주의국가이다.

75돌기의 년륜을 새겨온 공화국은 언제나 인민의 운명과 생활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맡아안고 꽃피워주는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려왔다.

이것은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민위천의 리념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혁명을 시작하시였으며 그것이 구현된 국가를 세우시고 빛내이시였다.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유격근거지에 첫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던 그 나날 인민이 주인된 진정한 나라를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계신 그이이시였다.

해방후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민족의 장래발전에 대한 그 어떤 똑똑한 정치적견해도 못가진 사람들은 갖가지 궤변들을 들고나와 새 조국건설의 길에 난관을 조성하고있었다.

그들가운데는 해방된 조선은 부르쥬아제도를 세우는 길로 나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당장 사회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교 건당, 건국, 건군사업을 새 조국건설의 3대 파업으로 내세우시였다.

개선연설을 하시던 력사의 그날에도 그이께서는 새 조선에 세워야 할 정권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고, 이러한 정권은 바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시였다.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마련하신 인민정권건설로

선을 구현하시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부터 세우시였다. 그러시교는 토지를 맡겨주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시고 중요산업의 국유화와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시여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수 있도록 법적토대를 마련해놓으시였다.

진정한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이의 헌신과 로고는 공화국의 헌법을 제정실시하고 국호와 국기, 국장, 국가를 바로 제정하는 사업에도 깃들여있다.

그이께서는 헌법초안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이도록 하시여 공화국헌법이 명실공히 인민의것으로 되게 하며 헌법토의과정을 통하여 인민이 나라의 기본법까지도 제손으로 만드는 새 조선의 참된 주인이라는 자각과 긍지를 안고 통일적중앙 정부수립을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에도 조국을 참다운 인민의 나라, 진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빛내이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어 려있다.

국호와 관련하여 종파분자들이 궤변들을 들고나올 때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국호는 명백히 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되어야 한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는 우리 나라 밖에 없다고, 남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 나라 실정에 맞고 우리 인민이 좋아하면 좋은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 현명한 령도로 정권문제를 해결하시였기에 인민은 자주권을 틀어쥐고 국가발전의 새 력사를 창조하며 이 땅우에 민족번영의 터전,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정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좌우명이 현실로 구현된 나라이다.

본사기자 변진혁

복리를 담보해주는 사회주의적시책들

오늘 조국인민들은 국가가 실시하고있는 시책속에서 안정되고 부림없는 생활을 누리고있다.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온 75년력사와 더불어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조국에 대한 긍지이며 자랑이다.

돌이켜보면 해방(1945. 8. 15.)직후부터 조국에서는 언제나 인민적인 교육시책을 실시하였다.

주체35(1946)년 2월에 소집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 회의의 의정으로 연필생산문제가 상정된 그날부터 이 땅에서는 교육의 새 력사가 시작되였다.

주체45(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 주체47(1958)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는데 이어 주체48(1959)년에는 전반적무료교육제가 실시되여 조국에서는 수업료라는 말조차 모르고 누구나 마음껏 배우게 되었을뿐 아니라 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게 되였다.

발전하는 현실과 함께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어 오다가 주체61(1972)년에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같은 력사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그 어디에나 학교가 일떠섰고 학습과 실험실습은 물론 과외활동, 답사와 견학, 야영을 위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고 교과서와 참고서, 학용품과 교복도 국가에서 보장

해주는 제도가 세워졌다.

주체101(2012)년 9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법령이 채택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교육체계를 완비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일신하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을 위한 력사적 사변이였다.

조국에서는 새세대들을 위한 법들을 채택하여 후대들을 위한 시책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에는 국가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일 좋은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어있다.

주체110(2021)년 6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이를 계기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결정하였다. 주체111(2022)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다.

조국의 법적정력사의 갈피갈피를 헤쳐보면 주체65(1976)년에 채택된 아이들을 위한 첫 법인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사회주의

로동법[주체67(1978년)], 인민보건법[주체69(1980)년]과 같은 법들보다 먼저 채택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후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담은 법들은 보다 늘어나고 내용들도 끊임없이 수정보충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국가가 인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고있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서 조국은 비상방역위기를 성과적으로 타개해 나갈수 있었다.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가 있어 모든 근로자들이 휴식과 건강을 보장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있는것이 바로 조국의 현실이다. 국가에서 품 들여 지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고있는 조국의 시책에 의해 평양시는 물론 전국도처에서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귀중함을 간직하고 맡은 일터마다에서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은

노래를 통해 본 조국의 력사

공화국이 창건되어 75년간 조국에 대한 노래만도 무려 수백편이나 창작되어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졌다.

주체37(1948)년 9월 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명곡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광범히 불리워졌다.

새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 된 기쁨을 안고 감격의 눈물속에, 웃음속에 목청껏 소리높이 불렀던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끝까지 온 나라 산천이 설레이도록 조국 땅 방방곡곡을 진감하던 기쁨의 노래에는 공화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 공화국의 미래에 대한 축복이 비껴있었다.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며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도 다 빼앗겨 상가집 개만도 못한 비참한 생을 살아야만 하였던 인민들이 인간존엄의 절정에 우뚝 올라선 환희와 기쁨도 실려있었다.

그 뜻깊은 해에 명곡 《새봄의 노래》, 《산으로 바다로 가자》도 나왔다. 하지만 새 조선의 앞길에는 랑만과 희열만이 노래되어 울린것이 아니었다.

미제는 1950년 6월 25일 새 생활창조로 들끓던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조국인민에게 있어 3년간의 전쟁시기는 그 어느때보다도 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으로 충만된 명곡이 많이 태어난 시기였다.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

의 길로》, 《진군 또 진군》, 《해안포병의 노래》와 같이 하늘끝에 닿았던 사랑과 긍지가 증오로 뒤바뀌어 울린 노래들과 《봄노래》, 《압록강 2천리》, 《내 고향의 정든 집》, 《전호속의 나의 노래》, 《아름다운 고향》과 같은 서정적인 노래들도 나왔다.

재능있는 작가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군인들과 인민들도 예술창조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해안포병의 노래》, 《샘물터에서》, 《우리 님 영웅되셨네》와 같은 명곡들을 창작하였으며 그것은 싸우는 고지의 용사들과 후방인민들에게 관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18살의 꽃나이에 불뽕논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고 부대의 돌격로를 연 리수복영웅의 이시는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세계를 훌륭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명곡으로 형상되었으며 지금도 새세대들속에서 애창되고있다.

생명도 하나이고 조국도 하나이지만 조국을 위해 자기의 한 목숨을 바치는것보다 더 위대한 행복이 없다는것을 기본사상으로 한 그 시의 구절구절은 결코 창작적환상으로는 지어낼수 없는것이다.

인민이 노래하는 조국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 이것은 비단 준엄한 전쟁에서만 아니라 공화국의 전력사적행로에서 검증된 진리이다.

3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조국은 빈터였다. 조국은 《복구건설의 노래》, 《일터의 휴식》, 《우리는 천리마타고 달린다》,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천리마대진군의 노래》를 부르며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어려운 난국을 짓부셔버리였으며 기적적인 속도로 전면적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전후 3개년계획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은 매해 평균 42%씩 성장하였으며 제1차 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무려 2년반이나 앞당겨 완수하였다.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 류레없는 전쟁피해를 가지고 튼튼하게 다져진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우에서 강력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된 조국은 반만년민족사에 없었던 락원의 새시대를 펼쳤다.

보고 듣는 모든것이 기쁘이고 자랑이었다. 흐르는 날과 달마다 경사이고 명절같은 조국의 품이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는 공화국은 만사람의 찬탄과 부러움을 받는 나라였다. 아름다운 조국의 노래란 인민이 부르는 삶의 찬가, 행복의 노래이다.

행복넘친 인민의 웃음이 풍요한 가을처럼 펼쳐진 그 꿈같은 세월에는 명곡도 풍년이였다.

《내 나라》,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번영하라 조국이며》, 《조국을 노래하네》, 《너보다 정다운 곳 나는 몰라라》,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 《살기 좋은 내 나라》...

조국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노래로 시련을 헤쳐나갔다.

한편한편이 수천수만발의 총포탄과 같았고 수백만의 식량을 대신하기도 했던 그 노래들가운데는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반영한 노래들이 많았다.

《후대들을 위하여》,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미래를 사랑하라》...

그 래일이 곧 부강할 조국이였기에, 향락의 오늘을 좇아서는 목숨같은 나라를 지켜낼수 없기에 인민들은 나라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오늘 조국인민들은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사랑하노라》, 《사회주의전진가》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 전면적발전을 위해 일해나가고있다.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끓이게 하는 국보적인 명작 《우리의 국기》를 부르며 고부르면서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수놓아가고있는 조국인민들이다.

새 조선의 하늘에 랑홍색 공화국기를 높이 띄우던 첫세대 공민들로부터 오늘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라는 그 신성한 영예를 안고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로부터 《우리의 국기》까지 조국인민들이 불러온 노래들을 이어놓으면 그것은 곧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이 된다.

본사기자 엄향심

일화

위민원신의 나날에

근본중의 근본

주체108(2019)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깊은 감회속에 건설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이 지구를 돌아보고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 여기야말로 온천휴양을 할수 있는 적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사연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한가지라도 더 해놓겠다는 생각과 안목만 있으면 사람들이 늘 보아오던 자연환경도 더없이 귀중한 재부로 느껴지게 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여기 건설에는 공장, 기업을 현대화하는데 지출되는 자금의 몇배나 되는 자금을 들이고있다고, 하지만 인민을 위한 일은 아무리 자금이 많이 들고 힘에 부친다고 하여도 무조건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이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중의 근본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당풍이고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의 기본임무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건축학현지강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 나오시였을 때의 일이다.

그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건축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을 밝혀주시였다.

도시건설에서 나타난 편향을 지적하고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살려 고상하고 품위있게 건설하면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인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것은 도시건설에서 핵이라고 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축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우선 주체성과 민족성이라고 력점을 찍으시면서 건물의 직관예술적효과를 높이고 그 직관성에 정치사상문화적감정을 철저히 부여하여 누가 보아도 주체건축이라는것이 알릴수 있게 할 때 건물이 주체성을 띠었다고 할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그이께서는 평양시는 우리 나라 수도로서의 고유한 민족성이 살아나게 건설하여 어느 나라 사람이든 평양에 오면 역시 평양이 다르다, 여기가 바로 평양이로구나 하고 말할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 * *

나라살림살이의 주인,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 평양시인민위원회 부국장 김철원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국가의 전반사업이 잘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정권 기관 일군들이 어떻게 사업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고 본다.

부국장: 그렇다.

이번에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는 인민위원장들이 자기 지역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지니고 사업에서 주도성, 창조성, 활동성을 적극 발휘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강조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인민정권은 나라살림살이의 주인,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는 정권이라고 하시였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이익의 보호자이다.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이러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정권기관 일군들은 맡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기자: 현시기 인민위원회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 향상시키는것이라고 본다.

부국장: 옳다. 인민을 나라의 근본으로,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



의 요구와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사업으로 일관되어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는것, 바로 이것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우리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본분이다.

우리 당에서는 오늘과 같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새로운 육아정책을 수립하고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해입히고있으며 학용품과 책가방을 만들어주는 등 커다란 혜택을 베풀고있다. 그리고 현대문명이 응축된 희한한 새 거리들을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안겨주고있으며 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이러한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이 모든 가정들에 골고루 빠짐없이 가닿도록 하기 위해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헌신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있다.

기자: 평양시인민위원회에서 최근시기 인민을 위한 좋은 일들을 전개하고있는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다.

부국장: 우리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일군들이 시안의 구역들을 맡아 현지에서 걸린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풀어주고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료해하고있다. 그리고 수원지들의 능력확장과 상수도시설보수 및 교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시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은 인민들의 생활상문제들을 자주 알아보고 사소한 불편과 고충도 겪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자각을 안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가 좋은 결실을 안아오는 실천가, 인민에게 진정을 기울이고 인민을 위해 밤낮이 따로없이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 되겠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 * *

《꿈만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우리 제도입니다》

지난 4월 우리 식구는 새로 일떠선 화성지구에 새 보금자리를 뒀습니다.

기쁨에 울고웃으며 새집에 입사한지 여러달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집에 들어설 때마다 이 훌륭한 새집이 과연 우리 집이 옳긴 옳은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준공식이 있는 날 이곳 건설자들의 친절 한 안내를 받으며 새집에 들어서는 순간 너무 감격에 겨워 저의 심정을 말로 다 표현할수가 없었습니다.

여러칸의 각이한 살림방들과 부엌, 위생실이 있는 집은 말그대로 호화살림집이었습니다.

새집에 입사하던 날 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여 하신 연설의 한 구절이 가슴뜨겁게 안겨왔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은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이.

저는 중앙열망사업소 만경대분사업소에서 근 30년간 맡겨진 일을 한 평범한 로동자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러한 저에게도 원래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새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만집니다.

지난해 송화지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에 입사하는 사람들의 기쁨넘친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행운이 차례질수 없을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4월 저는 너무나 뜻밖에도 살림집 리용허가증을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안해에게 그것을 보여주니 그는 혹시 잘못 받지 않았는가 하고 하면서 도무지 이 사



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림집리용허가증에는 정말로 저의 이름이 큼직하게 적혀져있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무조건적인 복무를 당풍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이 평범한 로동자에게 안겨준 현실이며 복종의 복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런 복은 수도로부터 지방의 그 어느 농촌에 가보아도 평범한 근로자들 누구에게나 다 차례지고있습니다.

근로의 땀과 애국의 량심을 천만금보다 귀중히 여기며 인민이 사회주의문명을 제일먼저 누리게 해주는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화성구역 화성3동 23인민반 최영택

단합의 리념 아래

(전호에서 계속)

남만지방인민들의 동향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국민부의 테로에 테로로써 대답하려는 경향이였다. 그 당시 국민부반동들은 남만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혁신파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테로를 강화하고있었다.

류하지방의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은 테로를 밥먹듯하는 국민부우파들과 결사적으로 대결해야겠다고 주장하였다. 국민부의 테로에 테로로 대답하는것이 왜 유해로운가 하는 우리의 논거를 그들은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테로로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면 그것은 테로를 조장하는 결과만 가져온다는것이였다.

나는 테로에 테로로 대답하는것이 왜 온당치 못한 처사로 되며 혁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망동으로 되는가 하는데 대하여 장시간 설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국민부가 애국자들을 학살한것은 물론 천추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대죄이며 동족의 손에 훌륭한 애국자들을 잃는것은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는 우리모두의 비극이다. 국민부는 이 죄악으로 하여 우리 민족과 후손들로부터 두고두고 저주를 받을것이다. 국민부를 살인백정의 집단으로 락인하고 복수를 다짐해나선 동무들의 심정은 물론 나도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복수의 칼을 버리기 전에 이런 불상사가 어떻게 되어 일어나는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민부가 민족주의우파의 소굴로 전락되었다고 하여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을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일제가 국민부를 반동화할 목적밑에 앞잡이들을 파견하여 부단한 와해작전

을 벌리는데 있다. 그들은 국민부내의 신흥세력인 혁신파에 주목을 돌리면서 그 내부의 분렬대립을 교묘하게 조장시켜왔다. 우리가 테로로써 국민부를 타도한다면 좋아할것은 일제놈들뿐이며 리득을 볼것도 일제놈들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부의 반동화된 상층을 고립시키면서 거기에 잠입한 일제의 앞잡이들을 색출해내고 적들의 음모를 폭로해야 한다. 민족재생의 담보가 단합에 있다는것을 모두가 잊지 말자.

내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자 청년들은 알만하다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우리는 이런 경향들을 바로잡아주면서 남만의 동무들에게 파피된 혁명조직들을 시급히 복구정비하고 그 두리에 대중들을 더 많이 묶어세울데 대한 과업, 핵심들을 육성하여 무장대오에 보내 줄데 대한 과업, 실천투쟁속에서 검증된 로동자, 농민출신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 당조직을 확대해나갈데 대한 과업, 중국인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우리가 삼원포, 고산자, 류하, 해룡일대에 머무르고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자원하여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남만지방에서 벌린 적극적인 정치활동의 총화라고 할수 있었다.

류하지방의 혁명운동을 앙양시키는데서 걸린 고리들을 풀자면 최창걸을 비롯하여 이 일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첫 당조직성원들과 공청핵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였다. 우리가 한해전부터 련계가 두절된 최창걸의 행방을 찾으려고 것처럼 애쓰 리유도 거기에 있었다. 최창걸을 만나면 일제의 만주강점이 현실로 되고 무장투쟁이 개시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남만지방에서 혁명을 어떻게 심화발전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논의를 할수 있으며 그에게 구체적인 사업방향

을 제시해줄수 있었다. 최창걸은 남만지방에 파견된 우리의 대표나 다름없었다.

류하는 《ㄷ. ㄷ》의 결정에 따라 그가 활동한 구역이였고 그와 여러가지로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고장이였다. 최창걸은 독립군생활도 거기서 시작하였고 화성의숙에 입학할 때에도 거기서 량세봉의 추천을 받았다.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최창걸은 출신중대에 들어가 독립군참사로 복무하면서 류하지방을 중심으로 남부만주의 광활한 지역에 《ㄷ. ㄷ》의 판도를 넓히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바치였다. 그는 류하에서 활동할 때 금천현성에 있는 일본령사관분관을 습격하는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류하와 흥경을 비롯한 남부만주일대에서 《ㄷ. ㄷ》의 대오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수 있었던것은 김혁, 차광수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수 있는 최창걸의 눈부신 투쟁과 능숙하고 세련된 사업전개능력에도 기인된다. 그는 새 사조의 출입금지구역이라고 말할수 있는 독립군들속에 들어가 생활하면서도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것을 숨기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진보적인 독립군대원들속에서 의식화작업을 주동적으로 하여 그들중 적지 않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신봉자로 개조하였다. 최창걸이 사람들과의 사업을 얼마나 통이 크고 대담하게 하였는지 그를 통솔하던 지휘관은 심지어 그가 주둔구역으로부터 10리나 떨어진 곳에 가서 몇달씩 정치공작을 하여도 상급에 보고하지 않고 눈을 감아주었다.

류하는 종파분자들과 반공모략에 이끌리 난 민족주의보수파분자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있던 곳이였다. 엠엘파분자들은 반석현에서 주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내어 남만의 민족주의단체들

과 대결하였고 혁신파와 보수파의 대립으로 분렬직전에 있던 독립군내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좌파인물들은 화요파, 서상파와 손을 잡고 민족단일전선조직을 서두르고있었다.

현목관, 고이허를 위시한 보수파인물들은 공산주의사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반동공세를 벌리였다.

이런 복잡한 분위기속에서 최창걸은 류하지구에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그 대렬을 급속도로 늘여나갔다.

종파분자들은 주중청총이 중국에 있는 조선청년들의 유일한 조직인데 류하반제청년동맹이라 는것은 또 무슨 단체인가고 하면서 트집을 걸었다. 엠엘계의 종파분자들은 류하반제청년동맹내부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이색분자들도 잠입시켰다. 그들은 반석지방으로부터 수십명의 청년들을 끌어들이 다니거우에 집결시키고 몽치단이라는 테로단을 무은 다음 삼원포에서 독립군이 반란을 꾸미고있다는 거짓정보를 제공하고는 경찰과 련합하여 반제청년동맹간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그때 최창걸은 그들의 추태를 저지시키고 동맹의 핵심들을 폭행속에서 구원해주었다.

최창걸은 종파분자들의 도발에 군사적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았다. 그는 원래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데서 대범한 성미를 지니고있었다. 후에 카룬에서 나를 만난 최창걸은 종파쟁이들의 곤장에 살을 찢기고 피를 토하는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보면서도 자기가 총탄을 발사하지 않고 리성을 발휘할수 있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단 검

김찬성동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한 기회에 자신의 진정이 담긴 선물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드리였다.

불수강으로 된 칼날과 나무뿌리로 만든 손잡이로 이루어진 단검의 길이는 32.5cm

이고 총너비는 6.5cm이며 손잡이와 칼집에는 금도금으로 된 꽃무늬들을 새기였다. 선물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동포의 다함없는 매혹과 흠모의 마음이 담겨져있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리사회성원인 김찬성동포가 드린 선물 주체107(2018)년 9월

민족의 진로를 밝혀주는 사상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진로는 가장 옳바르고 정확한 지도사상에 의해서만 과학적으로 밝혀진다.

나라와 민족이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지지 못하면 발전할수 없고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이 지배되면 그것은 레외없이 나라와 민족발전의 길을 역제하게 된다.

오늘 조국인민은 민족발전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민족의 진로를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민족의 진로를 밝혀주는 사상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사상이기때문이다.

민족의 운명개척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자주성을 떠나서 민족의 존재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나가려는 민족의 본성이다.

민족의 생명을 이루는 자주성은 민족의 존립과 발전을 기초지으며 민족의 룡성발전을 이룩하고 추동하는 원천, 근본요인이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자기 민족의 근본요인과 리익을 수호할수 있다. 만일 매개 민족이 자주성을 지키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하면 자기 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를 고수하고 실현하기는커녕 외세에 룡락당하고 침해당하게 된다.

오직 민족자주만이 민족이 살길이고 부흥발전하는 유일한 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한데 기초하여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으로 되며 이러한 자주성이 철저히 보장될 때 민족이 존재하고 발전할수 있다는것을 밝히였다.

이로부터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나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이 가장 선차적문제이며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매개 민족들앞에 나서는 근본요구로 제기하고있다. 때문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민족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민족의 운명은 참담게 개척되어나갈수 있게 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민족의 진로를 밝혀주는 사상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이기때문이다.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해나가자면 자주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따라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민족자체의 힘을 믿고 모든 문제를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창조적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사상과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있으며 인류리상사회건설의 전략적목표, 합법칙적으로정과 그 매 단계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과 수행방도 그리고 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완전한 평등과 자원성의 원칙에서 다른 민족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온 세계의 자주화실현에 참담게 이바지하게 하는 방도도 명시해주고있다.

김원식

맛 좋은 젓갈품들이 생산된다



젓갈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조선서해의 금산포지구에 여러가지 젓갈품들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이 있다.

공장에는 원료입하로부터 제품출하에 이르는 생산공정의 모든 요소들이 최대의 위생안전성과 높은 품질을 담보할수 있게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어있다.

공장에서는 건젓이젓, 까나리젓, 멸치젓, 조개젓 등 여러 종류의 젓갈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그리고 지방별식생활풍습과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염도와 매운맛을 합리적으로 정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으며 각종 부원료와 조미료를 첨가하여 젓갈품의 가지수를 더욱 다양하게 하고 그 질을 개선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젓갈의 숙성과정에 생기는 젓물을 효과적으로

공장에서 생산한 젓갈품의 일부



리용하여 여러 종류의 간장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젓갈품생산의 공업화수준을 보다 높여나가기 위해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인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게 선진기술을 적극 탐구하여 젓갈품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이고 가지수를 부단히 늘여나가고있다.

민족의 우수한 젓갈문화를 발전시키고 맛있는 젓갈품으로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해가려는 이곳 종업원들의 노력속에서도 평양과 지방들에서 금산포특산물들이 명제품으로 수요가 높아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리 철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제품들은 그 맛이 좋아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여성들이 즐겨 찾는 의복제품들

최근 조국의 여성들이 즐겨 찾는 의복제품들중에는 《들장미》상표를 단 옷들도 있다.

가벼우면서도 부드럽고 아름다우면서도 고상한 색깔과 모양, 맵시있는 형태의 세련미가 질게 풍기는 외투와 코트들...

《들장미》제품들은 지난해에 진행된 여성옷전시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녀외투는 1등을 하였다.

얼마전에 진행된 《봄철녀성옷전시회-2023》에서도 《들장

미》상표를 단 달린옷들은 높은 평가를 받고 우수상을 받았다.

이 제품들은 남신은하피복공장에서 생산되고있다.

이 공장은 사람들속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했던 공장이 오늘은 수십년간의 의복제품생산과 개발경험을 가진 큰 공장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루고있다. 비결은 새 제품개발을 경영활동에서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생산자대중이 떨쳐나선데 있었다. 도안가이건 재봉공이건 모두가 녀성옷도안

창작을 위한 현상응모에 참가하고있다. 종업원들은 출퇴근길에서도 사람들의 옷차림을 무심히 대하지 않았고 녀

성들의 기호를 수시로 알아보면서 새 형태의 도안창작을 위해 고심하였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에 옷견본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을 보충하면서 종업원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한편 그들이 도안창작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도안과 재단에 묘기를 가진 종업원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일꾼들은 그들속에서 창작된 도안들에 대해서는 즉시 대중합평회를 조직하고 그것을 더욱 완성시키도록 하였다.

재봉공들은 옷 한벌을 만들어도 정성을 기울이었다. 이러한 속에 새로운 형태의 옷도안

들이 계속 나왔고 제품의 질도 높아졌다.

공장에서는 전시회들에 녀성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심리를 명중한 수많은 수완성외투들을 비롯한 명제품들을 내놓았다.

성황리에 열렸던 전시회들에서 《들장미》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호평은 끊임없는 주문으로 이어지였다.

《우리는 앞으로 새 제품개발사업을 더 힘있게 벌려 녀성들속에서 <들장미>제품의 인기를 고수해나갈것다.》라고 김영란지배인은 말했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리 철



남신은하피복공장에서 생산한 녀성옷들은 《녀성옷전시회-2022》와 《봄철녀성옷전시회-2023》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품견본실에서



민족악기의 특성을 살려



평양민족악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옥류금, 어은금, 가야금, 장새납, 저대, 장고를 비롯한 민족악기들은 예술단체들과 인민들속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종합적인 민족악기생산기지인 평양민족악기공장은 평양시 락랑구역에 위치하고있다.

주체109(2020)년 12월에 조업한 공장에는 수십종의 현악기, 목관악기, 타악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생산공정들과 현대적인 CNC설비들로 악기부품을 정밀가공할수 있는 목재종합기계실, 공무가공실 등이 있다.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맑고 부드러운 음색을 가진 질 좋은 민족악기들을 수많이 제작하여 나라의 민족음악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였다.

생산부원 박지현의 말에 의하면 민족음악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는 속에 늘어나는 민족악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장에서는 민족악기의 질을



보다 개선하고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년간 공장에서는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계발시켜 민족악기들의 음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적지 않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해당 연구단위와의 연계밑에 목관악기음질측정기를

비롯한 효능높은 측정설비들을 연구개발하여 단소, 저대, 장새납과 같은 민족악기들의 음향적 특성을 정확히 평가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공장에서는 악기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와 소모품들을 국내의 원료로 전환하는 한편 음색이 맑고 아름답

다우며 표현력이 풍부한 민족악기의 음역과 음량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공장에서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 제품개발사업도 계획성있게 내밀어 제품의 가치를 보다 높여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평양교원대학



가상교수정황과 실제교수정황에서
의 실기수업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해나가고있다.



평양교원대학은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자리잡고있다.

주체57(1968)년 9월 설립당시 20명이었던 대학의 교원수는 지금 백수십 명을 헤아리고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 등을 졸업한 30대의 실력자들이 교수진영을 이루고있다.

대학에서 개발한 수많은 교육프로그램들과 새 교수방법들은 전국의 교원 대학들에 보급되고있다.

평양교원대학은 평양시안의 소학교교원들과 유치원교양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올해 9월 1일은 대학창립 55돛이 되는 날이다. 지난 기간 교육인재양성기로서 의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하여 많은 공훈교원, 인민교원들을 배출한 대학은 주체106

(2017)년에 새로 개건되였다. 연건축면적 2만 4 100여㎡에 기본교사와 보조교사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을 갖춘 대학은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여있다. 대학에는 소학교교수방법실기실들, 자연실험교수법실, 어



린이지능개발기술보급실과 소학교교실, 유치원교실, 어머니교실 등 다기능화된 실습실들과 교실들이 있다.

전국의 교원대학들의 본보기 대학, 학술연구중심, 보급중심으로 되고있는 대학의 교수진영은 그뿐하다.

학장부터가 후보원사, 교수, 박사이며 학부장, 강좌장들도 쟁쟁한 실력가들이다.

대학에서는 다른 나라의 발전된 현대 교육과학과 교육기술에 대한 연구도 심화시키고있다.

지식의 로화를 막기 위하여 현직교원들에 대한 재교육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하여 대학에서는 최근시기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교원들의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지능화, 자동화된 교육조종체계 《탐구자》 1.0을 개발한데 이어 소학교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는 수백건의 다매체편집물형식의 수자화된 교수참고자료들을 만들어 전국의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에 일반화하였다.

어린이로봇과외 교육방법과 어린이외국어과외 교육방법 등 수많은 교육지원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육방법들을 개발창조하고 수십종의 지능개발도서들을 집필하여 전국의 유치원, 소학교들에 도입일반화하였다.

이러한 속에 대학교원들속에서는 모범교수자들과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훌륭한 물질기술적토대와 튼



종이그림접기실습



실기실에서

조선민족무용기분 강의



튼한 교수진영은 그대로 학생들의 실력제고에도 이어지고있다.

이 대학의 교육에서 특징은 현대적인 교육과학과 교육기술을 도입하여 교육을 진행하고있는것이다. 전공이 특수한 교원대학의 양성목적에 맞게 실천실기비중을 높이면서 학생들을 한등급 높은 단계의 교육사업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교양원, 교원들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적용하고있다.

대학에서는 정황풀이교육방법, 복식교수방법, 부속소학교, 유치원과의 원격쌍방향실시간 교수방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소학교교수방법실기실들에서

는 교수설계, 가상교수정황에서
와 실지교수정황에서 수업을 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토론과 론

쟁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창조적
사고를 적극 계발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대학생들이 아이

들의 연령심리적특성을 파악하
고 그에 맞는 교수방법을 구
현하도록 하는데 교육사업의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해가며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능력있는 교육자들로 준비해가고있다.

과외시간에



체육활동을 통하여 자질을 높여나
간다.



중심을 두고있다.

지난 기간 대학을 다녀간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교원 대학을 돌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될수 있다면 다시 학생이 되어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싶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전 이 대학을 현지도하시였다.

박금희 학장은 《대학이 이룩한 성과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고, 후대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국력과 혁명의 전도가 좌우된다고 하시였다.

우리는 학령전교육과 소학교 교육을 맡은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떠맡을수 있는 훌륭한 교육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다.》라고 결의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방은심



자라는 꿈, 커가는 마음

보통강구역 보통강소학교 3학년 1반 학생들이 전오경, 전성덕, 전산경은 평양산원에서 445번째로 태어난 세쌍둥이이다.

첫째인 오경이와 셋째인 산경이는 분간할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이 똑같지만 둘째인 성덕은 남자아이가 돼서 그런지 모습이 다르다.

이들의 담임교원인 김홍선도 처음에는 오경이와 산경이를 자주 착각했는데 점차 성격들을 파악하는 과정에 쉽게 가려낼수 있었다고 하였다. 세쌍둥이는 공부도 잘하고 인사성도 밝아 동무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특히 성덕은 소년단열성자로서 학급동무들의 모범이 되고있다. 파고들기 좋아하고 탐구심이 강한 그는 매번 시험에서 10점을 맞고있다.

속이 깊은 오경이와 활동적인 산경이는 생활에서 다정하고 친근하지만 성덕을 앞서기 위해 승벽내기로 공부에 열중하고있다.

하루공부가 끝나면 이들은 학교의 여러 소조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꽃피워가고있다.

오경이와 산경이는 무용소조에서 조선무용의



둘째 전성덕



첫째 전오경(왼쪽)과 셋째 전산경(오른쪽)

기초를 배우고 성덕이는 탁구소조에 다니고있다. 소조지도교원들은 감수성이 좋은 이들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그에 알맞는 훈련방법을 적용하고있다.

이들의 재능은 지난 6월 6일 조선소년단창립절을 맞으며 학교에서 진행된 예술공연과 구역적인 탁구경기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세쌍둥이에게로 찾아오는 사람도 많다.

담당의사가 자주 세쌍둥이를 찾아와 일일이 검진하고 구역안의 일군들이 이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고있다.

모두의 관심속에 세쌍둥이의 마음은 커가고있다.

세쌍둥이는 국가적인 기념일때면 어머니와 함께 성의껏 마련한 물자를 가지고 살림집건설에 떨쳐나선 건설자아저씨들을 찾아가고있다. 얼마전에는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에 나가 청년건설자들을 고무하여 노래도 불러주었다.

그들의 어머니인 김분이녀성은 그러는 자식들

이 대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에서는 세쌍둥이가 태어나면 아이들과 그 부모에게 금반지와 은장도를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평양산원을 나서게 하며 육아원에서 4살까지 자라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나니 아이들은 첫걸음마도 훌륭히 꾸려진 육아원에서 뗀고 국가적인 관심과 보살핌속에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보면 제가 말이 엄마이지 우리 당과 국가가 애들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우리 세쌍둥이가 나라의 혜택을 한시도 잊지않고 보답의 한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쌍둥이는 주체111(2022)년 새해 설맞이공연에 출연하였으며 지난 2월 16일 광명성절을 맞으며 조선소년단에 입단하였다.

입단하던 날 그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자기들의 결의를 담은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임철병

자기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는 세쌍둥이



다음번 목표는 4련승

평양시에 있는 서성구역 와산소학교는 태권도교육을 잘하는 단위로 전국에 소문이 났다.

학교는 주체108(2019)년 제13차 전국소학교체육학급체육경기대회와 주체110(2021)년에 진행된 전국축구반, 소학교체육학급체육경기대회-2021에 이어 지난해에 또다시 1등을 함으로써 3련승을 쟁취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이 학교 태권도소조원들의 실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승컵 3개, 금메달 20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이것은 학교가 받은 컵과 메달수이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이 학교의 태권도소조력사에 비해볼 때 결코 적은것이 아니다.

훌륭한 학생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기마련이다.

어느한 학생소년회관에서 태권도지도교원으로 일하던 박영희가 와산소학교의 체육교원으로 사업한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전이다.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배워주던 그가 소학교학생들을 대상하자니 처음에는 힘에 겨웠다. 장난이 심하고 집중력이 약한 학생들에게 하나의 동작을 배워 주자고 해도 이에 대한 설명과 시범동작을 수십번 반복하여야 했다.

어떤 때에는 과연 소학교학생

들을 전국적인 태권도경기에 참가시킬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슬기롭고 용맹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게 하고 태권도모국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분발해나섰다.

그는 소학교학생들의 경기요강에 맞게 틀동작을 기본으로 훈련방법을 착상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니 나 어린 소조원들의 동작수행에서 정확성이 보장되었으며 결과 소조원들의 틀동작습득속도가 빨라지게 되었다.

박영희교원은 교편물도 소학교학생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소조원들이 기초틀동작은 물론 난도높은 틀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으로 주체108(2019)년 제13차 전국소학교체육학급체육경기대회 태권도경기에서 와산소학교가 우승하게 되었다. 자기와 한책상에서 공부하는 동무들이 사범들 못지않게 틀동작을 하는 모습은 학교의 학생들속에 태권도열풍을 일으켰다.

지난해 전국축구반, 소학교체육학급체육경기대회-2022 태권도경기 개인틀종목에서 1등을 한 5학년 1반에 다니는 리유련은 이렇게 말하였다.



《태권도를 배우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어떤 정황이 조성되면 겁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면서부터 자

신심과 용감성이 생기고 몸도 튼튼해졌습니다.》
개인틀종목에서 3등을 한 4학년 2반 학생 박의정은 앞으로

태권도선수가 되어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휘날리겠다는 소중한 꿈을 안고있다. 지금 학교의 태권도소조원들

은 4련승을 안아올 일념 안고 훈련에 열중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남편 박영택



안해 박혜옥

학위학직증서들에 비낀 마음

우리는 얼마전 평양시 평천구역 미래동 6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공훈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인 김책공업종합대학 반도체연구소 소장 박영택의 가정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니 맴맴느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박영택의 안내를 받으며 살림방들을 돌아보았다. 수백㎡에 여러칸이나 되는 방들은 아담하고 정갈하였다.

한 살림방에 이르니 벽면에 붙어있는 여러가지 증서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는 우리에게 집주인인 박영택원사는 《우리 집식구들이 받은 학위학직증서들입니다.》라고 하면서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안해는 부교수, 석사이고 맴맴느리는 경제학박사라며 일일이 소개하였다. 남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안주인 박혜옥이 새간을 낸 둘째아들과 며느리도 석사라고 뒤를 이었다.



박영택은 이 증서들을 볼 때면 생각이 많아진다며 지나온 나날들을 더듬었다.

그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의 어느 산골마을이었다. 의료설비들을 수리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그는 앞으로 커서 전자공학분야의 과학자가 될 꿈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그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희망대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학생 시절에 여러 학과목들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졸업후 대학의 반도체연구소 연구사로 사업하였다. 그 나날 그는 현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을 연구종자로 잡고 심화시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았다.

조국에서는 그를 박사로, 교수로, 원사로 내세워주었고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섰을 때에는 새집도 배정해주었다.

그는 그 고마움을 언제나 잊지 않고 더 많은 연구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자식들도 실력과 실적으로 조국을 받드는 과학자가 되도록 이끌었다. 최근년간에만도 그는 연구사들과 함께 여러가지 압력수감소자들과 온도수감소자 등을 연구개발하였다.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직십자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사업하는 맴맴느리는 선진수술방법을 도입하여 의학박사가 되었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인 맴맴느리는 재자원화의 경제기술적방도를 제기하고 해결하여 경제학박사로 되었다.

추억의 상념에서 벗어난 박영택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 증서들이 매 개인의 학위학직에 대한 단순한 증서라고만 생각지 않습니다. 이 증서들에는 과학기술로 조국을 받들려는 우리 가정의 마음이 담겨져있으며 오늘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성과를 내놓기 바라는 조국의 당부가 담겨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보다 연구실적으로 조국을 받드는것을 량심으로 여기고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과학탐구의 길을 걷고있는 박영택가정.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과학자의 긍지와 영예는 학위학직에 있는것이 아니라 과학연구성과들로 조국을 받들어나가려는 애국의 마음에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느끼며 학위학직소유자 가정의 집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상식

《훈민정음》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자랑하는 조선민족의 재보들중에는 《훈민정음》도 있다.

《훈민정음》은 1444년 1월에 조선봉건왕조의 4대왕 세종의 직접적인 관여밑에 집현전의 이름있는 학자들에 의하여 창제되었다.

《훈민정음》을 그대로 해석하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당시의 기본글자수는 자음 17자, 모음 11자 모두 28자였다.

오늘 세계에는 수천개의 민족어가 있으나 매개 민족마다 자기의 고유한 글자를 가지고있는것은 아니다. 그것도 대부분 글자들의 기원을 놓고보면 해당 나라와 민족들이 글자를 자체로 만든것이 아니라 이웃민족, 이웃나라의 글자들을 모방하거나 변형시켜 만든것이다.

세계글자류형에는 그림글자, 뜻글자, 소리글자 등이 있다. 소리글자는 소리마디글자와 자모글자로 구분된다. 그가운데서 가장 완성된 글자가 자모글자이다.

바로 《훈민정음》은 발전된 류형의 글자인 자모글자라는데 그 우수성의 하나가 있다.

《훈민정음》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의 말소리도 거의다 표현할수 있다. 바로 이런 특성에 대하여 그 창제자들은 《천하의 소리를 다 적을수 있다.》라고 하였다.

《훈민정음》은 이외에도 사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 독특한 원리로 만들어지고 누구나 배우기 험하며 쓰는데 편리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선조들은 《훈민정음》에 대하여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에 통달할수 있고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흘이면 다 배울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훈민정음》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 * *

로동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수도의 치료에방기관들에 가보면 림상실천에서 호평을 받고있는 고순도증류수기, 증기압소독기, 심전계를 비롯한 의료기구들을 볼수 있다.

이 의료기구들은 만경대구역에 위치하고있는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에서 생산된것들이다.

주체58(1969)년 8월 창립된 초기에 몇개의 의료기구만을 생산하던 공장은 품종을 확대하면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2년전에 공장은 수십종의 의료기구들과 함께 수자식렌트겐진단장치, 자기공명화상진단장치를 비롯한 전기 및 전자의료기구들의 생산과 조립을 공정별로 전문화할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진되었다.

공장에서는 해마다 지표별로 의료기구들을 원만히 생산해내고있으며 계획완수자들이 늘어나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공장에 훌륭히 꾸러진 로동생활조건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공장에서는 건물을 개진할 때 생산의 주인인 종업원들의 로동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하여 공장지붕에 원림경관을 펼쳐놓고 종업원들이 록음우거진 곳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낼수

있도록 하였다.

로동자들은 여가시간이면 옥상에 꾸러진 휴식터로 올라오군 한다. 이곳에는 제라니움, 일일초, 장미를 비롯한 화초들과 관상용식물이 있는가 하면 포도나무도 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나무들의 모양을 가꾸기도 하고 여러가지 꽃관목들도 심고있다.

전자의료기구조립작업반 조립공 한전진은 《나는 작업반동무들과 함께 여기에 올라와 경치도 부감하고 화초들과 나무들을 가꾸기도 합니다. 그러느라면 쌓였던 피로가 가서집니다.》라고 하였다.

지붕에는 휴식터와 함께 온실도 꾸러져있는데 사철 중단없이 남새를 수확한다.

온실관리원 리창숙의 말에 의하면 온실에서 나오는 도마도, 오이를 비롯한 남새들은 그대로 중

업원들의 식탁에 오르고있으며 생일을 맞는 로동자들은 공장에서 생일상도 받는다고 하였다.

공장구내에 있는 솔향원에서 로동자들의 웃음꽃이 피어나고있다. 3층으로 된 건물에는 편의봉사시설들이 꾸러져있어 그들은 문화정서생활도 다양하게 하고있다.

공장의 이러한 로동생활조건은 생산장성, 생산성과로 이어지고있다.

공장은 올해에 인공호흡기, 미량주입기를 비롯한 의료기구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공장의 종업원들은 여가시간마다 지붕에 꾸러진 휴식터에서 꽃관목을 가꾸면서 휴식도 하고 온실에서 남새수확의 기쁨도 맛보고있다.

공장에서는 자연에너기도 적극 리용하고있다.
주체112(2023)년 6월 촬영



모두가 주인이 되어 로동생활환경을 일신시켜나가고있다.
주체112(2023)년 6월 촬영

푸른 숲에 바쳐진 10여년



김영숙

향유의 흔적은 남지 않아도 일한 흔적은 뚜렷이 남는다. 찢찢하게, 보람있게 인생을 살자면 이 땅에 행복의 씨앗을 묻어야 한다.

평안북도 운산군 마원리에 가면 갖가지 꽃관목들과 나무들이 숲을 이룬 수십정보의 산림을 볼수 있다. 목란, 철쭉, 진달래를 비롯한 꽃관목들과 잣나무와 세잎소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들...

군주민들은 이곳을 마원리의 식물원이라고 말한다. 바로 여기에는 조국의 산을 무성하게 하는 길에 자신들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마원리탁아소 소장 김영숙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 저녁이었다. 퇴근하여 집에 들어선 김영숙녀성의 남편 리원식은 불꺼진 방에 홀로 앉아있는 안해를 보게 되었다. 무슨일이 있었는가고 묻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깊은 상념에서 깨어난 김영숙녀성은 오늘 보도를 들으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나라일이 그쳐



럼 바쁘신 속에서도 함경남도 리원군산림경영소 양묘직장을 찾으시여 우리 민족이 대대로 살아온 삼천리금수강산을 우리 세대에 와서 더 잘 보호하고 더 잘 꾸려 풍치수려하고 여러가지 열매들이 주렁지는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고, 애국의 열의로 불타게 하는 그이의 교시를 되새겨볼수록 가슴을 진정할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기간 탁아소주변에 몇그루의 나무를 심어놓고 공민적의무를 다한것으로 만족하였던 자신을 가슴아프게 책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누가 시킨 사람은 없었지만 김영숙소장은 스스로 산림조성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우선 탁아소와 집주변에 나무모밭을 일구기 시작하였다. 집과 탁아소주변의 척박한 땅을 파헤치고 돌을 취내었고 흙을 날라 구멍이들을 매우면서 한평한평 나무모밭을 늘구었다. 수백평의 나무모밭을 마련한 김영숙소장은 군양묘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찾아다니며 나무모들을 구해들이었고 밤을 밝혀가며 산림조성사업과 관련한 과학기술을 터득하였다.

그는 갓난아기처럼 더우면 더울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늘 원심을 쓰며 나무모들에 심혼을 다 쏟아부었다. 그 나날들에는 애써 가꾸어 겨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어린 나무들이 간밤에 내린 폭우에 씻겨내려가 남모르게 눈물도 흘린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고생을 이겨내며 나무모를 가꾸었다. 산밭을 오르내리고 때식도 건넬면서 나무모밭에 진정을 바쳐가는 그의 진정에 감동된 보

육원들과 자식들도 적극 따라나섰다.

그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새로 일군 나무모밭에서는 잣나무와 소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들이 키돋움하며 튼튼하게 자랐고 산에는 나무들이 하나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뿐만이 아니였다.

김영숙소장은 보육원들과 힘을 합쳐 축사를 일떠세워 산림조성에 필요한 거름도 확보하였다. 그리고 도안의 여러곳은 물론 나라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갖가지 꽃관목들과 약초,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더 구해들이 산림자원을 늘여나갔다. 이나날 그들이 지성을 바친 산들에는 조국의 국화인 목란과 국수인 소나무로부터 시작하여 경제적수익성이 높은 잣나무, 단나무, 수유나무들과 약초 등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었다.

이렇게 조성한 40여정보의 산림에서 해마다 수확한 열매를 김영숙소장은 리의 탁아소는 물론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보

내주고있으며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단나무열매와 약초들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게 보내주고있다.

올해에도 김영숙소장은 10여정보의 기름밤나무림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나무모를 튼튼히 키워내고있다.

인생의 기쁨도 행복도 숲에서 찾고 자신의 모든 소원도 숲에 담아 자래우며 조국의 산림자원을 늘이는 길에 온넋을 바쳐가는 김영숙소장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여러 대회들에 대표로 불러주었다.

나무가 대지에 뿌리내린 때부터 자기의 년륜을 새기듯이 김영숙소장과 그의 가정, 리탁아소의 보육원들은 오늘도 산림을 가꾸는데 인생의 년륜을 뚜렷이 새겨가고있다.

얼마전 김영숙소장은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되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손녀의 생일을 맞으며 온 가족이 나무를 심었다.

모녀우표수집가

인터넷과 이동통신망에 의한 통신활동이 보편화되고있는 오늘 편지를 통한 서신거래는 매우 드물게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우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애착은 여전히 지속되고있다.

조국에는 많은 우표수집가들이 있는데 그들중에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피아노학부 교원 김은심(42살)과 그의 딸인 만경대구역 김주혁고급중학교 학생 김레연(15살)도 있다.

어머니 김은심과 딸 김레연이 수집한 우표들의 일부

우표수집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길수 없는 하나의 일과로 되고있다.

이들이 우표수집을 시작한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전이다.

언제인가 소학교에 다니던 레연이가 어머니에게 우표 한장을 사달라고 하였다. 리유인즉 공부 시간에 편지쓰기에 대하여 배웠는데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고싶다는것이였다. 은심은 딸애를 데리고 체신소로 갔다.

그들의 눈에 비껴든 여러장의 우표들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비록 크지 않은 우표마다에 조국의 자연, 력사, 경제, 문화 등이 반영되어있

었던것이다.

이들은 우표의 세계에 심취되었으며 그때부터 우표는 그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였다.

레연이는 할머니와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편지마지막에는 꼭 희귀한 우표를 보내달라고 쓰곤 했다. 할머니는 귀여운 손녀의 부탁대로 꼭꼭 회답편지와 희귀한 우표를 붙여서 보내주곤 하였다.

레연이는 봉투에 붙은 우표를 조심히 떼서는 우표책에 정히 건사하곤 하였다. 그의 취미를 알고 동무들도 집에 있는 편지봉투들을 가져다주곤 하였다.

그 나날 그의 우표책은 두터워졌다. 공부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매일 저녁 우표책을 보는 재미란 남다른것이였다.

우표책속에는 그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도 있었고 천문학을 비롯한 여러 부분의 생소한 우표도 있었다.



새로 수집한 우표를 놓고

그에게 있어서 우표를 보는 과정은 학습에 대한 하나의 복습과정, 연습과정이었고 미래를 꿈꾸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 레연이의 마음속에는 우주탐험가가 될 꿈이 자리잡게 되었다.

어머니인 은심은 딸애가 우표수집을 해도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집중력, 감상력을 키우도록 늘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리고 때때로 딸과 함께 수집한 우표들을 분류별로 체계화하면서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그도 우표책에서 교수에 도움을 주는 적지 않은 자료들을 얻곤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의 피아노수업은 언제나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으로 되고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생일기념품을 주어도 우표를 주곤 한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우표는 하나의 <종이보석>이다. 왜냐하면 우표에는 매 나라의 제일 자랑스러운것이 그려지기때문이다. 우표는 작아도 거기에는 조국의 모습이 비껴있다.》

모녀우표수집가는 자주 조선우표박물관에 가서 조국의 첫 우표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나온 우표들을 보면서 의견을 나누곤 한다.

이들은 조선우표수집가협회 회원들이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건축공학부문의 최우수발명가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송영일

송영일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건설부문 과학기술심사위원회 위원장,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건축공학학위문분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책무도 지니고있다.

그는 67살이지만 오늘도 건축공학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조국의 건축공학부문의 권위자들속에는 평양건축대학 공학과학연구원 부원장 송영일도 있다.

평양건설건축재대학(당시)을 졸업한 후 그는 지난 수십년간 전국의 크고작은 공장, 기업소의 구조물들과 공공건물들, 살림집들을 대상으로 많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과 발명, 창의고안을 하여 나라에 큰 이익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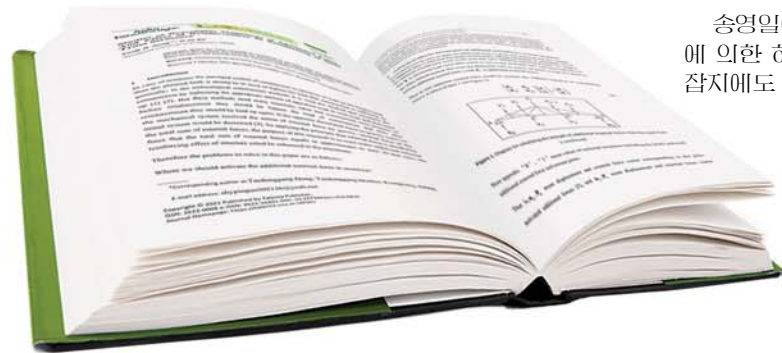
그는 주체110(2021)년 한해에만도 6건의 발명을 하여 2022년 최우수발명가로 선정되었다.

창조적지혜와 고뇌의 산물이라고도 할수 있는 발명을 한해동안에 여러건이나 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전공분야와 경제과학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과 함께 성실성, 열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언제인가 평양시의 어느한 화력발전소에서는 높이가 45m인 10개의 기둥들에 대한 구조보수를 해야 할 공사가 제기되었다.

매 기둥이 기울어진 각도가 서로 다르고 한개 기둥이 받는 하중이 수십t이나 되는것으로 하여 공사는 위험을 내재하고있었다. 건축공학부문의 관록있는 과학자들과 오랜 연공들은 기둥들과 벽면들을 까내고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송영일은 대담한 공법으로 10개의 기둥들을 자그마한 실수도 없이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바로세웠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매 기둥의 중요한 부분들에 국부보강재를 삽입하여 기둥들이 자기 기능을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그가 내놓은 공법의 도입으로 보통 3년이 걸린다던 공사가 2달이라는 기간에 끝나게 되었으며 많은 노력과 자재, 자금 등을 대폭 줄일수



송영일이 발명한 《추가외력작용에 의한 하중덜기효과》공법은 국제잡지에도 실리었다.

있게 되었다.

화력발전소들의 보이라후부연도도관의 리용률을 늘이는데도 그의 새 공법이 도입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보이라후부연도도관을 강판으로 하는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것이였다. 하지만 방출되는 아류산가스로 하여 부식된 강판을 3년에 한번씩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거기에 드는 강판의 량은 엄청났다. 그는 아직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해보지 못한 새 공법으로 강판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후부연도도관을 30년이상 리용할수 있게 하여 기성관례에 종지부를 찍었다.

평양건축대학 일군인 손원은 말하였다.

《부원장선생이 창조한 대부분의 공법들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볼수 없다. 그가 이러한 발명들을 많이 할수 있는것은 두뇌가 명석하고 실력이 높아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의 사색은 언제나 후날에 가서도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창조물들로 되게 하려는 그 하나에로 줄달음치고있다.》

산업구조물들의 보수, 보강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복잡한 과학기술적 문제들도 막힘없이 해결하는 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두뇌가 비상한 과학자》, 《담이 큰 일군》, 《<밝은 눈>을 가진 발명가》 등으로 부르고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한다.

그가 태어난 곳은 일본이다. 4살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조국의 품에 안긴 그는 돈 한푼 내지 않고 대학공부까지 하였다.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하며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의 혜택으로 생을 누리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에서 자기가 안겨사는 조국의 품이 얼마나 따사로운가를 그는 폐부로 절감하면서 성장하였다. 이 모든것은 그의 인생에서 지울수 없는 소중한 체험으로 되었다. 아마 그것이 그를 건축공학부문의 실력가, 권위자, 최우수발명가로 되게 한 자양분으로 되지 않았는지.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송영일은 러명거리의 70층살림집과 송화거리의 80층살림집의 내진구조에 대한 과학적인 론증으로 초고층건물들의 안정성을 담보하였다.



대평지구의 새 모습

최근 조국에서는 새 거리, 새 마을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련이어 일떠서 어디 가나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고있다.

지난 5월 대평지구에도 새 살림집들이 일떠서 노래바다, 춤바다가 펼쳐졌다.

고향을 몹시도 그리고있을 중국에 살고있는 리춘옥동포에게 반가운 이 소식을 전하기 위

하여 우리는 대평지구에로 향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한눈에 바라보이는 대평지구는 아름다웠다.

지대에 어울리는 소층살림집들이 반원형식으로 일떠서있는가 하면 고층살림집들도 자태를 뽐내고있었다.

대평지구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아가던 우리는 만경대구역

삼흥3동락아소에 들렀다.

오회영소장은 새 거리에 일떠선 락아소에 처음으로 온 기자선생들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2 000여㎡의 연건축면적에 물놀이장, 식사실, 유희운동실, 지능놀이실 등이 동심에 맞게 꾸려져 어머니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기고있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락아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놀이에 여념이 없는 어린이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의 웃음이 실려있었다.

이어 우리는 만경대구역 룡악산고급중학교에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기능체육관, 교육기자재들이 그뿐히 갖추어진 소조실들과 햇빛밝은 교실들...

어느 교실들에서나 씩씩하게 자라나는 학생들의 행복한 모

습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우리와 만난 1학년 2반 리지웅학생은 새 학교도 선생님들도 동무들도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학교의 여러 실험실들과 실습실들에서 열띤 논쟁을 벌려가는 학생들과 수영장에서 기쁨의 물보라를 날리는 학생들의 모습들도 렌즈에 담았다.

연방 사진을 찍는 우리에게 교장선생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이 집에 갈 생각도 잊고

학교마당에서 뛰어놀아 교원들이 적지 않게 《애》를 먹는다며 자식들의 학교자랑에 학부형들이 매일같이 구경을 온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러 학부형들이 학교로 들어왔다.

학교뿐이 아니라 새 거리에 일떠선 상업봉사기지들과 편의봉사시설들에서도 주민들의 행복에 겨운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주민구역을 가까이하니 흥





학교에 꾸러진 수영장에서 시간가는줄 모른다.



삼흥3동 11인민반 강림의 가정에서



변모된 거리를 거닐며

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알고보니 삼흥3동 11인민반 8층 1호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였다.

그 노래소리에 이끌려 우리는 그 집을 찾았다.

가수가 살고있는가 해서 올라왔다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 집의 세대주는 웃으며 방안의

로 이끌었다.

3칸이나 되는 살림방들을 안내하며 세대주는 이렇게 말하였다.

《새집이 나를 <가수>로 만들었습니다. 송전선건설사업소에서 로동자로 일하는 나는 퇴근해오면 베란다에 나가 대평지구의 전변을 한눈에 바라보

군 합니다. 그러면 평범한 주민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을 마련해준 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젖어듭니다. 궁궐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우리 당에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집뿐이 아닙니다. 대평지구의 1 400여세대 어느 가정에도

서나 로동당의 은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막대한 힘을 기울여 수

도와 지방에 일떠세워 평범한 공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준 우리 조국.

하기에 이 땅 어디 가나 나라의 은덕을 노래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것이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기 시

작했다. 우리는 불밝은 살림집들의 창가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 웃음소리를 뒤에 남기고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새로 건설된 삼흥3유치원

장기수풀이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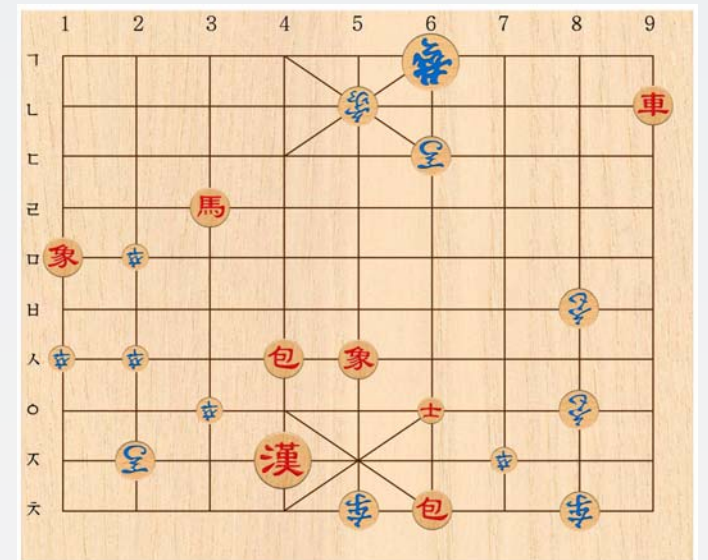
장기격언

훈수는 제 수가 아니다

훈수의 도움으로 이긴 장기를 의미하는 동시에 이렇게 이긴 장기는 몇몇치 못함을 뜻하고있다.

장기수풀이 (8)에 대한 답

○8포○6, ㄹ6졸ㄹ7, ㅅ5병ㅅ6,
ㄹ7졸ㄹ6, ○7상ㄹ9, ○9차ㄹ9,
ㅅ6병ㅅ7, ㄹ6졸ㄹ7, ㄱ7말ㅅ6,
ㄹ7졸ㄹ6, ㅅ6말ㄹ7, ㄹ6졸ㄹ7,
ㅅ7병ㅅ6, ㄹ5차ㄹ6, ㄴ4차ㄴ5,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이모님들은 건강하십니까.

용삼이 아버지와 어머니, 고모, 모스크바에 있는 손녀도 잘 있습니다.

귀염둥이손자들도 무척 컸으리라고 봅니다.

얼마전 세대주의 생일을 맞으며 온 집안이 한 자리에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멀리에 있는 외삼촌과 이모들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외삼촌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체격이 우람하고 성격이 좋은데다가 어릴 때부터 체육이면 체육, 음악이면 음악 모든것을 다 잘했다고...

외삼촌, 저는 지금 싸할린에서 외삼촌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편지를 씁니다. 4년전 외삼촌이 보낸 편지를 반갑게 받아보고도 회답 한장 전하지 못한 저를 욕 많이 하십시오.

12년전 싸할린에 갔을 때 저를 각근히 돌봐주던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의 따뜻한 모습에서 돌아간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피줄은 속이지 못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참, 우리 자식들도 잘 있습니다.

말이는 여전히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고 있고 둘째인 손남희는 가정을 이루고 작년 7월에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김연정이라고 지었는데 지난 7월 12일 돌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곱게 생겼는지 온 집안의 웃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막내인 손영명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신학부 학생인데 이제 좀 있으면 졸업을 합니다. 아이때부터 머리가 좋아 신동으로 불리워 모란봉제1중 학교를 다닌 영명이는 대학에서도 공부를 잘해 최우등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품성도 좋아 선생님들과 학급동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보고 싶어하는 세대주는 여전히 중앙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대주도 외삼촌처럼 체육을 좋아합니다. 한때 속도빙상선수생활을 해서 그런지 아직도 체육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뒤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삼촌, 싸할린에 갔다온 후로 저의 집도 이사하였습니다.

삼촌도 조국에서 살림집건설이 얼마나 벅차게 진행되는지 알고있으리라고 봅니다.

2021년이후부터는 해마다 평양시에 1만세대의 살림집들이 일떠서 어디 가나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아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10년전 새집을 받던 우리를 보는것 같습니다.

원래 살던 집도 2칸짜리 집이었는데 나라에서는 더 좋은 3칸짜리 집을 우리 가정에 배정해주었습니다.

살림방들과 부엌, 세면장이 얼마나 넓고 시원한지 집식구들모두가 좋아하였습니다.

외삼촌네 집도 그새 이사를 했다는데 어떤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외삼촌, 두서없이 쓰다나니 이 소리, 저 소리 하였습니다.

혈압도 높으신데 건강에 주의를 돌려주십시오. 외삼촌어머니와 이모들에게도 이 조카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양시 중구역 동안1동 58인민반 최정녀조카올림



평양시 중구역 동안1동 58인민반 최정녀조카올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돛에 즈음하여 재중, 국제고통련동포 조직들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돛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에서 경축행사가 이 진행되었다.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대표부, 총령사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과 영상작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료녕지구협회 단둥시지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화가족, 길림지구협회 전 부회장 홍영순가족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돛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보고회가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비전임일군들, 중앙상임위원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일군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 재중조선인녀성협회 회원들, 료녕지구협회산하 지부장들, 심양시지부 공민들,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을 비롯한 재중동포들과 지원군로병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최은복의장은 보고에서 지난 조선전쟁은 세계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렬한 전쟁이었다고 말하였다.

조선인민과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침략자미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영예를 수호함으로써 력사에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오늘 공화국의 백승의 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굳건히 이어지고있으며

자주강국의 존엄과 위용은 만방에 떨쳐지고있다고 언명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돛경축 좌담회와 동포예술인들의 공연, 연회가 있었다.

또한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돛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올리는 편지를 채택하는 모임이 진행되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와 목단강지구협회, 중남지구협회 상해시지부를 비롯한 산하조직들에서 경축행사가 있었다.

한편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국제고통련)의 주최로 로씨야과학원 동방학연구소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돛경축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김철성 국제고통련 위원장과 부위원장들, 로씨야고통련, 우즈베키스탄고통련, 끼르기즈스탄고통련 일군들, 로씨야과학원 중국 및 현대아시아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급연구사가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로씨야의 정당, 사회단체, 학계, 친선협회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도 초대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여 대사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7.27은 조선인민이 세계제패를 꿈꾸던 미제를 타승하고 항복서를 받아낸 날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이 력사적승리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지략과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락탈당한 《꿈에 본 동산》을 두고

꿈이란 참으로 이상하고 묘연한 것이다.

손으로 잡을수 없고 깨어나면 안개처럼 사라지는것이 꿈이다.

이러한 꿈이야기를 생동하게 형상한 화가가 있으니 그가 바로 안견이다.

15세기 유명한 화가로 이름을 떨친 안견은 조선화의 전통적인 화법을 훌륭하게 구현하였을뿐 아니라 그 내용에서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화가였다.

안견이 온갖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뒤에 있는 산에서는 폭포가 흘러내리는데 발밑에서는 꽃들과 산삼, 불로초들이 자라나 향기를 풍기고있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계를 그린 조선화 《꿈에 본 동산》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을뿐 아니라 필치가 힘있고 아름다운것으로 하여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안견이 그린 《꿈에 본 동산》은 사진으로만 남아 전해지고있다.

그러면 그 그림은 어디로 갔는가.

명화는 1893년에 일본의 남쪽지역에 있는 가고시마현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 살고있던 시마즈라는자가 개인재

산으로 소장하고있었던것이다. 시마즈가 어떻게 되어 이 그림을 자기의 손에 넣게 되였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임진조국전쟁시기 가고시마령주로 조선에 침입한 왜장의 후손이라는 사실로 보아 이 작품이 침략자들에 의해 락탈당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시마즈가 가지고있던 이 그림은 그후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걸쳐 오사카에 살던 소노다 사이에게 팔리였다.

1910년대초 일본 도쿄에서 미술전람회가 열리였을 때 소노다가 이 작품을 공개하였는데 조선봉건왕조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입수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너무도 엄청나게 비싼 값을 부른것으로 하여 끝내 넘겨받지 못하였다.

그후 1947년에 소노다는 이 그림을 도쿄의 어느한 골동품가게점에 팔아넘기였고 1953년에는 또다시 골동품상인을 통해 어느한 종교단체에 입수되였다고 한다.

이 작품은 1939년에 《일본의 국보》로, 1950년에는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였다고 한다.

15세기 조선의 화가 안견의

작품 《꿈에 본 동산》의 일본류출사건은 많은것을 시사해준다.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회화작품을 락탈해간것도 성차지 않아 국보아닌 《국보》로 만들어놓은 일본의 뻔뻔스럽고도 후안무치한 파렴치성의 일단을 엿볼수 있다.

돌이켜보면 1592년 4월 13일 일본침략자들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라는 황당한 구실을 걸고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력사에 임진왜란으로 기록된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은 일본의 령토강탈야망과 해외침략정책의 직접적산물이며 조선을 대상으로 감행한 첫 국가적범죄였다.

일본침략자들은 늙은이, 유부녀, 어린 소녀 할것없이 닥치는대로 죽이였고 수많은 녀성들을 랍치하여 짐승도 낫을 붙힐 야만행위를 감행하였으며 귀중한 문화재들을 닥치는대로 파괴하고 락탈해갔다.

뽀르뚜갈인이 쓴 《일본사》에 의하면 당시 일본침략군 우두머리들의 락탈만행은 더 말할

협정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토론회가 끝난 다음 로씨야고통련과 동포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 * *

것도 없고 배사공, 운반공, 천민들까지도 조선에서 문화재들을 락탈하여 돈벌이를 하려고 광분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국보급의 귀중한 도서들과 우수한 건축물들을 소각, 파괴하였을뿐 아니라 도자기, 종, 불상, 미술작품 등도 마구 락탈하였는데 그 수는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다.

하기에 일본인 학자까지도 《히데요시의 침략전쟁은 조선문화재를 깡그리 일본에 날라간 문화락탈전쟁이기도 하였다.》고 실토했다.

임진조국전쟁이후에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략과 락탈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일제는 40년간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야만적인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면서 천문학적액수의 문화적재부와 자연부원

을 깡그리 락탈해갔다.

현재 일본에 있는 조선민족의 많은 회화유산들을 보면 도쿄국립박물관에 전시된 수백점을 비롯하여 여러 공예관, 회화관, 박물관, 대학, 사원, 각종 학교들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수중에 장악되어있는것들을 합치면 적어도 수천점에 달한다.

그런데도 일본은 조선의 문화재들을 저들의 《국보》로 내세우고있다.

일본의 한 학자는 일본에서 《국보》로 내세우고있는 회화유산들에 대하여 《일본의 국보라고 세계에 자랑하고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미를 찬양하고있는 작품의 거의 모두가 대체 누구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거의 모두가 조선민족에 의하여 만들어진것

이 아닌가.

이것은 력사가들도 립증하는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당히 말해서 조선의 국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될것이다.》라고 솔직히 고백한데서 잘 알수 있다.

그러나 오늘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온갖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사죄와 배상은커녕 미화분식하면서 최악의 력사를 되풀이하러 하고있다.

이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행위는 조선인민의 적개심을 더욱더 격앙시키고있다.

조선민족은 과거 일본의 조선문화재락탈만행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피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임향심

력사이야기

공정한 소송판결

참치우라는 사람이 전라도감사로 있을 때 어느날 젊은 량반형제가 판가에 소송하러 찾아왔다.

내용인즉 큰 가마와 작은 가마 두개를 놓고 서로 큰것을 가지겠다고 하다가 결판을 내지 못하여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였다.

감사가 그 가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가마냐고 물으니 부친이 유언없이 갑자기 죽어 모든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가지자고 락착이었는데 가마의 크기

가 달라 문제로 된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형은 형이라고 큰것을 가지겠다 하고 동생은 동생대로 똑같이 나누어가지자고 락착지은 것이니 그렇게 하자면서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이들의 말을 듣고난 감사는 탄식을 했다.

《히, 량반이라는 집의 자제들의 의리가 이러하니 세상명분을 어찌 세우랴!》

허구프게 웃고난 감사는 아전들에게 소리쳤다.

《저 두 가마를 깨서 저울로 달아 똑같이 나누어주거라!》

이 말에 눈이 휘둥그레진 두 형제는 서로 쳐다보다가 감사에게 자기들의 소송을 취소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령을 받은 아전들이 도끼로 가마를 깨서 저울로 달아 두 형제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었다.

쇠조박만 받아안고 울상이 된 량반형제는 꼴불견이였다.

* * *



허란설현과 허경란

조선봉건왕조시기 녀류시인이었던 허란설현(1563년-1589년)은 소설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이이다.

허란설현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류달리 아름다운 용모를 타고나서 녀신동이라고 불리웠다. 그는 5살때부터 시를 지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 허엽은 란설현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 당시에는 녀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 장려되지 않고있었기 때문이다.

란설현은 오빠들이 공부하는 것을 엿듣고 글을 익혀 시를 지었다. 그는 뛰어난 총명성으로 하여 오빠들보다 많은 글을 읽었고 지은 글도 많았다.

그는 처녀시절뿐 아니라 김성립에게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시를 지었다.

그러나 그는 아깝게도 26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짧은 생애에 많은 시를 썼으나 다 전해오지 못하고있다. 녀인들에게 글을 장려하지 않던 당시에 그가 쓴 시를 출판해줄리가 없었던것이다. 다행히도 몇편이 전해지게 된것은 그의 오빠 허균의 덕이었다.

허균이 37살때 중국에서 오는 주지번이라는 사신을 맞이하는 관리로 임명되었다. 그는 사신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글짓기로 즐기기도 하였다. 사신은 허균의 글재주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에게 기념으로 될 글 몇편을 달라고 하였다.

허균은 자기에게는 변변한 글이 없으나 누이의 글이 있으니 한번 보라고 하면서 그앞에 내놓았다.

주지번은 그 시들을 보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더구나 녀성이 쓴것이라니 더 귀한 보물이라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

중국에 돌아간 주지번은 그 시들을 묶어 《란설현집》으로 출판하였다.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게 된 《란설현집》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우며 사랑을 받게 되었다.

란설현의 시를 몹시 애독하던 사람들가운데 허경란이라는 녀인이 있었다. 허경란은 선조때 번역관으로 중국에 들어가 살던 허지의 딸이었다. 허경란도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7~8살에 시를 지었다. 그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조국으로 나오지 못하고 친척집에 얹혀 그대로 이국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자라 나이가 들면서부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

갔다. 이러한 그에게 《란설현집》은 마치 조국의 한줌의 흙과 같이 귀중하였다. 그것이 자기와 같은 녀성이 쓴 시라는것으로 하여 더욱 그리하였다. 경란은 란설현의 시의 운을 따라서 시를 지어보기도 하였다. 그 시들은 후에 한 책으로 묶어져 《해동란》이라는 표제로 출판되게 되었다.

그가 허란설현의 시에 어찌나 사로잡혔던지 나중에는 자기를 이미 세상을 떠난 란설현의 환생으로 여기고 그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었다.

그는 허란설현이 26살에 죽었으니 그의 환생인 자기도 26살에 죽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26살이 되던 해에 친척들앞에서 《내가 금년에 꼭 죽을것이다.》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런데 그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그는 죽지 않았다.

《그럼 내가 허란설현의 환생이 아니라 범상한 태생이었던 말인가?》

그는 이렇게 되뇌이군 하면서 몹시 실망했다고 한다.

* * *

유모아

모두 무서워하다

수술준비를 하던 의사가 긴장되어있는 환자를 보며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무서워하오?》
《나는 처음으로 수술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좀 떨립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도 흥분되고 불안해하는것같은데요?》
《그야 그렇지요. 나도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수술이거든요.》

* * *

조선의 단청

두공무늬

두공은 조선의 목조건축물에서 지붕처마를 돋우게 하고 떠받들기 위하여 기둥우와 도리사이에 설치하는 기둥받침구조이다.

주두, 소로, 첨차, 산미, 봉두로 이루어진 두공은 구조뿐만 아니라 만초무늬, 파련무늬,련꽃무늬, 모루무늬, 비단무늬, 록화무늬, 장획선 등 여러가지 다양하고 풍부한 무늬장식으로 더욱이채를 띤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룡흥사 대웅전 내부두공장식



을밀대 외부두공장식



석왕사 조계분 외부두공장식



서운사 대웅전 외부두공장식

《변고양이》로 불리운 변상벽

변상벽은 화상과 동물을 잘 그리는것으로 하여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화단에서 이채를 띠었다.

특히 그는 동물중에서도 고양이와 닭을 잘 그렸다. 당시 화단에서는 그를 가리켜 《변고양이》라고 불렀고 화상화도 잘 그렸으므로 나라에서 으뜸가는 명수라는 의미에서 국수라고도 불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아래마을에서 사는 어떤 젊은이가 이른아침부터 변상벽의 집대문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어찌나 다급하게 두드렸던지 변상벽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신발도 채 찾아신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변상벽이 대문을 여는것과 동시에 젊은이가 뛰어들어왔다.

변상벽은 깜짝 놀라 하마트면 뒤로 나가넘어질번 하였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요?》

《이 집에 쥐를 잘 잡는 변고양이가 있다는게 사실이요?》

《뭘뭘, 쥐잡는 변고양이?》

변상벽은 아침부터 웬 싱거운 사람이 찾아와 자기의 성까지 붙여가며 고양이를 찾는 바람에 더한층 화가 치밀어올랐다.

《이 집엔 변고양이느커녕 고양이사촌도 없수다. 아침부터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군.》

변상벽은 두눈을 부라리며 혹시 고양이의 그림 자라도 찾을가 하여 이 구석, 저 구석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젊은이의 팔을 와락 나꾸어채며 대문밖으로 밀어제졌다.

《여보시오, 이것 좀 사정봐주세요. 예? 제발 도와주세요.》

그 사람은 변상벽에게 밀리우면서도 밖으로 나갈대신 더 바투 다가서며 사정하였다.

《아, 이 집엔 고양이가 없다질 않소. 나 이런 변이라구야.》

변상벽은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일수도, 막무가내로 뺨쳐낼수도 없었다.

그러거나말거나 그 사람은 자기의 안타까움을 하소연하였다.



《고양이》

93. 7×42. 9cm 비단·담채



《어미닭과 병아리》

94. 4×44. 3cm 비단·담채



《개》

20×25cm 종이·담채

《전 아래마을에서 록두지집집을 운영하는데 창고에 쌓아놓은 록두마대가 쥐들의 성화에 몽땅 녹아나고있지요. 글썽 이걸 어찌면 좋수?》

손이야 발이야 애걸복걸하는 그 사람을 보며 변상벽은 더욱더 난처해하였다.

《아니, 대체 당신을 내게로 보낸 사람이 누구요?》

그때에야 그 사람은 다급히 대답했다.

《정다산이라고 유명한 학자선생이지요. 그가 말했수다. 웃마을에 사는 화가 변상벽선생의 집에는 쥐들이 얼씬도 하지 못한다고. 그 집에 유명한 변고양이가 있다나요?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변상벽은 그 사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터져나오는 웃음을 끝내 참지 못한채 폭소를 터뜨리고야말았다.

《역시 정선생이었구려. 하하하... 우리 집에 고양이는 없지만 대신 고양이그림이야 많지요.》 변상벽은 그의 손을 이끌고 방으로 안내하였다.

어안이 병병하여 영문도 모르고 변상벽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던 그는 그만에야 깜짝 놀랐다.

방안벽이 온통 고양이천지였던것이다.

파릇파릇 돌아난 잔디밭우에 봄별을 쪼이며 서로 재미나게 튀구는 한쌍의 고양이.

고목을 중심으로 한 고양이가 나무우에 기어오른 고양이를 멍청히 올려다보는 모양.

새끼들을 거느리고 버드나무아래에서 햇빛을

쪼이는 한쌍의 엄지고양이.

젊은이는 입을 하 벌린채 방안을 빙빙 돌았다.

《이젠 내 말이 옳다는것이 증명되었지요?》

변상벽이 젊은이를 꼭 찌르며 물었으나 그는 그림에 넋을 잃고 미처 대답도 못했다.

한동안 얼이 나간듯이 서있던 젊은이는 문득 한쪽벽에 걸려있던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변선생, 이 그림을 내게 주시오. 이 고양이가 얼마나 생동한지 쥐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겠수다.》

하여 젊은이는 변상벽의 고양이그림을 가져갔는데 그후로는 쥐의 성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만큼 그의 그림이 신묘하였다.

이밖에도 변상벽은 《어미닭과 병아리》, 《개》를 비롯한 우리 나라 농촌의 그 어느곳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동물들의 생활을 자연풍치와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묘사하였는데 그 동물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것들의 동태와 심리, 체구, 꼬리, 날개 등 특징적인 움직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치밀하게 관찰한 흔적을 엿보게 된다.

또한 변상벽은 도화서 화원으로서의 자기의 특기를 남김없이 발휘한 화상화 《윤금의 화상》도 그렸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변상벽은 18세기중엽 이 름있는 화상화가, 동물화가로서 우리 나라 회화사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병석

상식

신 기 전

신기전은 우리 선조들이 삼국시기부터 리용해온 불화살들에 기초하여 15세기에 새로 만든 무기이다.

이것은 크기와 반작용화약통의 구조에 따라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으로 나누었다.

소신기전은 화약통이 약통과 외통의 두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발사되면 약통이 먼저 반작용하고 뒤따라 외통이 반작용하는 형식으로

2계단로켓처럼 비행하였다.

중신기전은 반작용화약통이 약통, 외통 및 소발화의 세 부분으로 되어있어서 발사되면 약통이 먼저 반작용하고 뒤따라 외통이 반작용하며 마지막으로 소발화가 반작용하는 형식으로 3계단로켓처럼 비행하였다.

대신기전은 반작용화약통이 약통, 외통, 지화 및 소발화의 네 부

분으로 되어있어 발사되면 4계단로켓처럼 비행하였다.

신기전의 설계치수는 15세기중엽에 국가적으로 규격화 및 표준화되었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선조들은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들에서 신기전을 많이 리용하였다.

* * *

칠보산 (2)

- 외칠보 -



외칠보의 두 계절

외칠보는 칠보산에서 내칠보와 해칠보지역을 제외한 일대를 포괄하고있다. 외칠보는 내칠보의 수려하고 의젓한 자태와는 달리 높이 솟은 웅대하고 기묘한 봉우리들과 기암절벽,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들이 많아 산악미와 계곡미로 특징지어진다.

이 일대는 지역적특성과 참관로정에 따라 장수봉, 만물상, 로적봉, 덕골, 강선문, 다폭동,

황진구역으로 나눈다.

장수봉지역에 들어서면 먼저 옛날 독수리가 둥지를 틀고살았다는 수리봉이 안겨오고 한 장수가 장엄한 기세로 서있는듯한 장수바위, 장수가 검을 갈군 하였다는 검바위와 검을 갈 때 솟돌물로 리용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옥류담 등을 볼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신통히도 송이버섯모양의 웃음바

위가 있는가 하면 맹수들이 괴상한 모양으로 자기의 용맹을 뽐내는듯한 맹수봉, 처녀바위와 총각바위 등이 있어 자연히 걸음을 멈추게 한다. 처녀바위는 비물에 젖은 치마폭을 한손으로 감싸쥐고 비웃을 걸친채 수집은듯이 서있는 암전한 처녀모습그대로이다. 그와 반대로 무뚝뚝하고 순박한 총각이 처녀에게 첫사랑을 고백하며 어색하게 서있는것처럼 보이는 총각바위는 절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만물상구역에는 기암절벽을 이루면서 높이 솟아있다 하여 만장봉으로 불리우는 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마치 궁궐같다는 궐문봉, 천만대군을 지휘하는듯 기발하게 솟은 장군봉, 하늘의 선녀들이 만물상구경을 하다가 하늘로 오르곤 하였다는 승천봉,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월락봉을 비롯한 봉우리들과 그 비탈면에 펼쳐진 명소



만물상의 여름



쌍지암



해불바위



수담바위

들을 포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금시 모이를 쪼아먹고 날듯이 머리를 쳐든 수담바위, 한 장수가 칠보산에서 무술을 익힐 때 그의 활촉에 맞아 구멍이 송송 뚫리었다는 축혈암(곰보바위), 외칠보에서 전망의 명소로 이름난 조약대를 비롯한 명소들이 있다.

조약대에 오르면 장군봉, 승천봉, 궐문봉을 비롯한 봉우리들과 그 비탈면들에 이루어진 만물상전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기암괴석들로 이채를 띠는 만물상은 그 누가 말하면 말한대로, 생각하면 생각한대로 그 모양이 나타나 사람들을 경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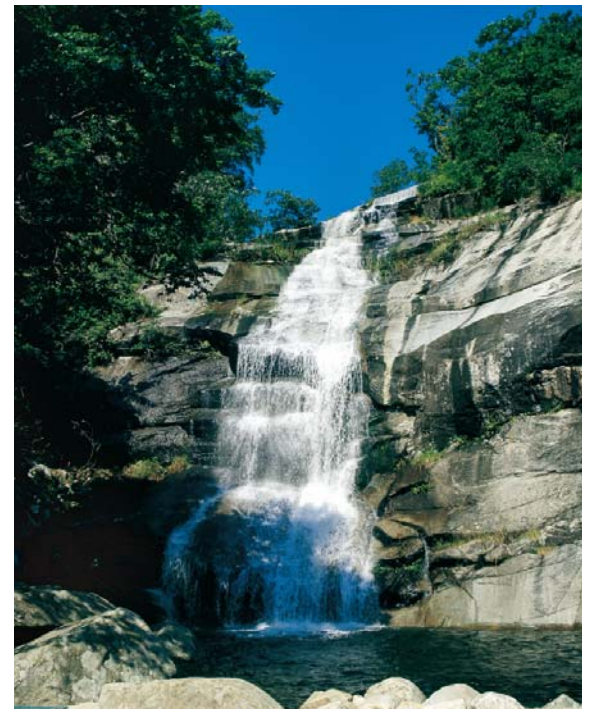
조약대에서 보면 해발높이 500m가 넘는 새길령이 안겨온다.

이 령길이 개척된 다음부터 사람들은 보춘을 거쳐 다니던 수십리길을 에돌지 않고 곧바로 가전동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새길령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이 지름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정상인로인의 공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세운 대리석비석인 신도령비가 있다.

로적봉구역에는 수만석의 쌀가마니를 쌓아놓은듯한 로적봉과 바위돌이 툭날처럼 날카롭게 생겨 마치 행군서렬의 기수들이 추켜든 기발갈다는 기치봉을 비롯한 이름난 명소들이 있다.

하천기슭의 평퍼짐한 곳에 솟은 로적봉은 화강암우에 덮인 현무암이 오랜 세월에 걸쳐 비바람에 씻기고 깎이여 드러난 봉우리로서 고깔모양을 이루고있다. 봉우리의 틈결마다에는 키 낮은 소나무들도 자라고있어 풍치를 더욱 돋구어준다. 로적봉과 잇닿은 등마루에는 한 농민이 로적가리를 더 높이 쌓을 생각으로 허리춤에 손을 얹고 로적봉을 바라보는것같은 풍돌바위가 있다. 로적봉옆에는 로적가리의 낱알을 찢어서 보관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미로굴도 있다.

로적봉일대에는 벼랑진 바위벽을 타고 쏟아져다가 큰 향아리같은 담소에 떨어졌다가 다시



소량화폭포



룽소폭포



바위벼랑을 타고 떨어지는 2단폭포와 로적봉골짜기풍치에서 손꼽히는 6단폭포가 있다. 6개의 계단을 거쳐 흐르는 이 폭포수는 누운폭포와 선폭포로 되어 떨어진다. 6단폭포의 매 높이는 6m로부터 최고 25m에 달한다. 물량이 많은 장마철이면 6단폭포의 전경은 장관을 이룬다.

덕골구역은 기암절벽과 계곡을 굽이쳐흐르는 맑은 물, 푸른 숲으로 뒤덮인 산밭들 그리고 기묘한 봉우리들과 바위들로 하여 아름다운 절경을 이룬다. 여기에는 마치 고구려의 용맹한 무사가 위풍당당히 앉아있는 듯한 장군바위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인 너인이 장군을 향해 절을 하는 듯한 큰절바위가 있다. 이 바위들은 원추와의 싸움에서 무자비하였던 고구려군사들의 용맹한 기질과 조선녀성의 아름다운 풍모를 다 안고있는듯싶어 칠보산의 경치를 한껏 돋구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이밖에도 덕골일대에는 특색있게 홀

러내리는 덕골폭포와 아이를 앞에 안고 또 엷은 듯한 모양을 이룬 모성바위, 내경바위, 쌍지암 등으로 불리우는 명소들이 있다.

강선문구역에는 7개의 골짜기와 8개의 릉선으로 이채를 띠는 7곡8릉, 마치 등산객들이 한 줄로 서서 산으로 오르는것처럼 보이는 행렬봉, 부처가 울방자를 틀고앉아있는듯한 좌상봉을 비롯하여 이름난 명소들이 많다.

툽날같은 행렬봉마루의 한 부분에서 돌이 무너져내리면서 생긴 강선문은 크기와 형태에 있어서 그 어느 명산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자연돌문이다. 그런가 하면 7곡8릉은 릉선마다에 홍치바위, 수양암, 보가지바위, 어옹바위, 승렬암, 대호암, 가재미바위 등으로 불리우는 기암들이 있어 기묘한 경치를 펼쳐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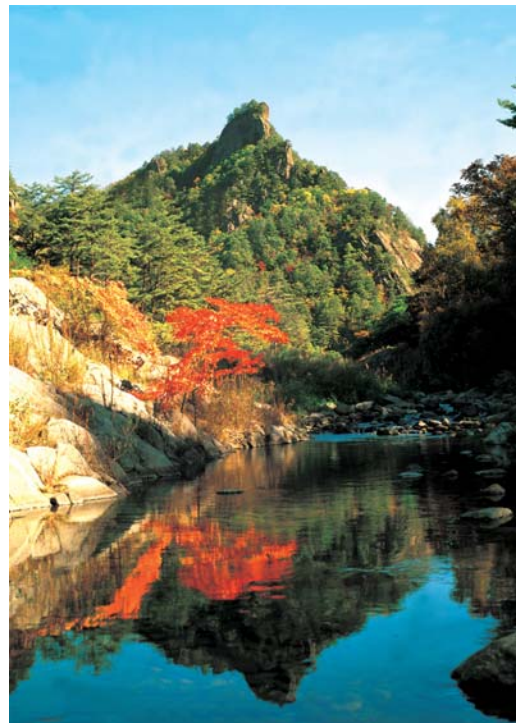
다독동구역은 운만대의 서쪽 룡소골에 이루어



조약대에서 본 월락봉



강선문



가람봉



로적봉

진 명승지로서 칠보산의 계곡미를 대표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말그대로 폭포 아니면 소이고 소 아니면 폭포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골개수가 폭포와 담소로 되어있다. 이름난 폭포와 담소로서는 칠보산에서 제일 큰 폭포의 하나로 알려진 룡소폭포와 타원형으로 생긴 룡소담, 2개의 계단을 거쳐 쏟아지는 2단폭포와 한쌍의 사슴이 물을 먹군 하였다는 음륙담, 높이 9m인 금직폭포, 누운폭포로서 이채를 띠는 은주폭포, 떨어지는 폭포수의 형태가 마치 소낙비가 쏟아지는것같은 천우폭포를 비롯한 크고작은 폭포들과 담소들이 있다.

이밖에도 외칠보에는 황진구역의 온천, 칠성봉, 룡선바위, 보시기바위를 비롯한 명소들이 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진호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